

## 노인의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이수진<sup>1</sup>, 홍소형<sup>2\*</sup>

<sup>1</sup>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sup>2</sup>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Effect of Solidarity with Non-Cohabiting Children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Su-Jin Lee<sup>1</sup>, So-Hyoung Hong<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Kunsan College of Nursing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비동거 자녀가 1인 이상이고 연구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4,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비동거 자녀와의 비대면 접촉 빈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1%였다. 자녀 결속을 중심으로 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 노인의 삶의 위로가 되고 관계의 연속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연락 빈도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 성공적 노화, 자녀 결속, 근접성, 만남 빈도, 비대면 접촉 빈도

**Abstract** This study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data of the 7th Aging Research Panel in 2018, 4,106 people over 65 years of age who had at least one non-living child and no missing values in the study variables were enroll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included age,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pouse, education level, housing type, subjective health, exercise, alcohol drinking, and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with non-cohabiting childre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24.1%. In order for the elderly to achieve successful aging, centering on child ties, the frequency of non-face-to-face contact, which can comfort the elderly's life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life in a continuous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children live close and meet frequently. Based on this study, various strategies are needed for the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eople who are socially isolated due to concerns about COVID-19 infection.

**Key Words** : Elderly, Successful aging, Child solidarity, Proximity, Face-to-face meeting frequency,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Corresponding Author : So-Hyoung Hong(hsh-so@hanmail.net)

Received May 19, 2021

Revised July 2, 2021

Accepted July 20, 2021

Published July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3%, 2067년 46.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이와 같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변화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점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노년기의 질병과 쇠약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은 1986년 미국 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소개된 이후[3]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4-6]. 이 중 Rowe와 Kahn[7]의 성공적 노화 개념은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다[8].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질병과 장애 예방, 신체·인지적 기능 유지,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공적 노화 구성 요소는 서로 위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질병 관련 위험성이 없으면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가 쉽고,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는 삶에 대한 활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구성 개념으로 통합적인 성공적 노화 모델을 제시하였다[9].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이론이 전일적인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고[10], 가족 관련 요인 즉 자녀와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1]. Rowe와 Kahn도 과거에 그들이 설명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넓혀야 함을 강조하였고 서구의 문화적인 기반에 근거를 둔 것임을 인정하였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는 이유는 성공적 노화 수준을 영역별 점수로 측정하여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고 정책입안자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별로 노인들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족 관련 요인은 노인부양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13].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여기며 삶의 많은 영역이 자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자녀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로써 노년기에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그 어느 생애 발달단계보다 돈독하다. 특히 현대의 노인 세대는 전통적인 부모 자녀관을 갖고 있으므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이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9]. 그러나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가구 72.4%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같이 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23.3%에 그치고 있다 [15]. 이는 자녀동거가 곧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16]. 이런 시대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를 의미하는 결속감은 [17]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9,18,19], 대다수의 연구에서 세대 간 접촉은 부모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9,20,21].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년기의 약화된 경제력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소외되기 쉬운 상황에서 자녀의 독립은 소홀한 관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예측되나 이들 요인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이하 COVID-19)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노인의 삶의 영역과 삶의 질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비대면 돌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2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owe와 Kahn의 질병과 장애 위험 요소,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요소, 사회활동 요소에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65세 이상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 근

거하여 자녀 결속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여부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비율 및 하부영역별 비율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자녀 결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노동정보원에서 조사한 2018년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고령자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고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설문내용은 가구 배경, 인적 속성, 가족, 건강, 고용,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국민 중 임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대인 면접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33602호)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7차 기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6,940명 중 65세 이상이면서 동거 자녀가 없는 노인 중 성인 자녀가 1인 이상이고 연구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4,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자료는 이미 생성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e-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면제(PO1-202006-22-016)

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고용조사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연구자 정보 및 이용목적을 밝히고 제7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결과와 설문지, 코드북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흡연, 음주를 사용하였다. 연령은 65세~74세, 75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혼인 중',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여 '혼인 중'은 '배우자 유', '별거, 이혼, 사별 또는 실종, 결혼한 적 없음'은 '배우자 무'로 재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거 형태는 '본인 소유',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로 조사된 문항을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매우 좋음', ' 좋음', '보통', '나쁜 편', '매우 나쁨'으로 조사된 문항을 ' 좋음', '보통', '나쁨'으로 재분류하였다.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 운동은 '예', '아니오'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에 '예', '아니오'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고 음주는 평소 음주 여부에 '예', '아니오'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 2.4.2 자녀 결속

자녀 결속은 비동거 자녀와의 근접성, 만남 빈도, 연락 빈도를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근접성은 '1.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부터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상'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에서 4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녀와의 만남 빈도는 '1. 거의 매일'부터 '10. 만나지 않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에서 10으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녀와의 연락(전화, 편지, e-mail, 화상통화 등) 빈도는 '1. 거의 매일'부터 '10. 만나지 않음'으로 조사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에서 10으로 조사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 2.4.3 성공적 노화

본 연구에서는 Rowe와 Kahn[7] 이론을 기본으로

질병과 장애를 피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한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성공적 노화라고 하였다.

세부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를[2,17,23,24]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3.1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역은 만성질환 개수로 측정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염의 8개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 만성질환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 2.4.3.2 인지적, 신체적, 심리적 영역

인지적 영역은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 점수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18] MMSE-K 점수가 24점 이상인 경우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신체적 영역은 일상생활 능력 측정 도구(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와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측정 도구(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로 조사된 항목을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 ADL 항목과 IADL 항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심리적 영역은 단축형 우울 측정도구인 CES-D 10(10-Item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CES-D 10은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20 문항 중 축약·변환 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도구로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진다.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23] CES-D10 점수가 4점 이상이면 우울로 정의하였으므로 3점 이하인 경우 심리적 영역의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 2.4.3.3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영역은 노인의 직업, 종교,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고 있는 모임(종교, 계 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행연구[23]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 변수 중 2개 이상 참여 시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2.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여부는  $\chi^2$ -test,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성이 2,419명(58.9%), 75세 이상이 2,221명(54.1%),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793명(68.0%)으로 많았다.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2,275명(55.4%), 주거 형태는 자가 소유한 경우가 3,552명(86.5%), 주관적 건강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40명(44.8%)으로 많았다.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2,814명(68.5%) 흡연 여부는 흡연하지 않은 경우가 3,837명(93.4%), 음주 여부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3,117명(75.9%)으로 많았다.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흡연, 음주로 나타났다( $p < .001$ ).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은 여성 50.5%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48.76$ ,  $p < .001$ ). 연령은 65세~74세 노인의 비율이 65.6%로 높았으며( $\chi^2=259.54$ ,  $p < .001$ )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0.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110.32$ ,  $p < .001$ ).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가 36.0%( $\chi^2=256.32$ ,  $p < .001$ ), 주거 형태는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90.6%( $\chi^2=29.34$ ,  $p < .001$ ), 주관적 건강은 보통인 경우가 52.0%( $\chi^2=439.76$ ,  $p < .001$ )로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운동을 하는 경우가 56.0%( $\chi^2=120.88$ ,  $p < .001$ ), 흡연( $\chi^2=12.90$ ,  $p < .001$ )과 음주( $\chi^2=93.73$ ,  $p < .001$ )는 하지 않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를 충족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Difference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106)**

Category		n (%)	Successful aging (n=1,179)	Usual aging (n=2,927)	χ <sup>2</sup> (p)
			n (%)		
Gender	Male	1,687(41.1)	584(49.5)	1,103(37.7)	48.76 (.001)
	Female	2,419(58.9)	595(50.5)	1,824(62.3)	
Age	65-74	1,885(45.9)	774(65.6)	1,111(38.0)	259.54 (.001)
	≥75	2,221(54.1)	405(34.4)	1,816(62.0)	
Spouse	Yes	2,793(68.0)	944(80.1)	1,849(63.2)	110.32 (.001)
	No	1,313(32.0)	235(19.9)	1,078(36.8)	
Education	≤Elementary	2,275(55.4)	424(36.0)	1,851(63.2)	256.32 (.001)
	Middle school	701(17.1)	274(23.2)	427(14.6)	
	High school	826(20.1)	346(29.3)	480(16.4)	
	College≤	304(7.4)	135(11.5)	169(5.8)	
Housing type	Self-owned	3,552(86.5)	1,068(90.6)	2,484(84.9)	29.34 (.001)
	Leased	240(5.8)	55(4.7)	185(6.3)	
	Rented on a monthly basis & others	314(7.7)	56(4.7)	258(8.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771(18.8)	398(33.8)	373(12.7)	439.76 (.001)
	Usual	1,840(44.8)	613(52.0)	1,227(41.9)	
	Unhealthy	1,495(36.4)	168(14.2)	1,327(45.4)	
Exercise	Yes	1,292(31.5)	519(44.0)	773(26.4)	120.88 (.001)
	No	2,814(68.5)	660(56.0)	2,154(73.6)	
Smoking	Yes	269(6.6)	103(8.7)	166(5.7)	12.90 (.001)
	No	3,837(93.4)	1,076(91.3)	2,761(94.3)	
Drinking	Yes	989(24.1)	404(34.3)	585(20.0)	93.73 (.001)
	No	3,117(75.9)	775(65.7)	2,342(80.0)	

**3.2 성공적 노화 비율**

성공적 노화 비율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하위 영역을 모두 충족하여 성공적 노화로 분류된 대상자는 28.7%로 나타났다.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 영역을 충족한 노인은 3,220명(78.4%)이었다. 인지적 영역을 충족한 노인은 2,324명(56.6%), 신체적 영역에서 ADL을 충족한 노인은 3,803(92.6%), IADL을 만족한 노인은 3,432명(83.6%), 심리적 영역을 충족한 노인은 2,169명(52.8%)이었다.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충족한 노인은 3,570명(86.9%)이었다.

**Table 2.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Aging (N=4,106)**

Domain	n(%)	
Absence of diseases	3,220(78.4)	
Cognitive function	2,324(56.6)	
Physical function	ADL	3,803(92.6)
	IADL	3,432(83.6)
Mental function	2,169(52.8)	
Active engagement	3,570(86.9)	
Successful Aging	1,179(28.7)	

**3.3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

대상자의 비동거 자녀와 결속 정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성공적 노화 그룹의 경우 7.73±1.48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5.329, p<.001). 근접성과 만남 빈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Levels of solidarity with adult children according to successful aging (N=4,106)**

Category	Successful aging	Usual aging	range	t (p)
	Mean±SD			
Proximity	2.30±0.89	2.28±0.88	1-4	0.743 (.458)
Face-to-face meeting frequency	5.27±1.73	5.16±1.69	1-10	1.931 (.054)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7.73±1.48	7.45±1.62	1-10	5.329 (.001)

**3.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Table 4와 같다. Hosmer Lemeshow 검정 결과 p=.742로 나와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Nagelkerke R<sup>2</sup>=.24로 본 모형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

적 건강, 운동, 음주,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로 나타났다. 65~74세의 노인이 75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88배 높았고( $p < .001$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4$ ).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에 비해 초졸 이하의 학력일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0.5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중졸과 고졸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 상태는 월세 및 기타의 형태에 비해 자가 소유한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10$ ) 전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을 '나쁨'으로 느끼는 경우에 비해 ' 좋음' 이거나 '보통'으로 느끼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5.19배,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54배 높았고( $p < .001$ ), 음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음주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3$ ). 자녀와의 결속 중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1.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7$ ). 성별과 흡연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Variables	Category	OR	95%CI	p
Gender	Male	.903	0.750~1.089	.285
	Female	1.00		
Age	65-74	1.880	1.600~2.208	<.001
	≥ 75	1.00		
Spouse	Yes	1.324	1.091~1.606	.004
	No	1.00		
Education	≤Elementary	.540	0.404~0.721	<.001
	Middle school	.972	0.719~1.313	.852
	High school	.982	0.736~1.311	.902
	College≤	1.00		
Housing type	Self-owned	1.538	1.108~2.135	.010
	Leased	1.424	0.901~2.251	.131
	Rented on a monthly basis & others	1.00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5.187	4.135~6.506	<.001
	Usual	2.863	2.353~3.484	<.001
	Unhealthy	1.00		
Regular exercise	Yes	1.537	1.312~1.801	<.001
	No	1.00		

Smoking	Yes	1.252	0.928~1.688	.141
	No	1.00		
Drinking	Yes	1.322	1.102~1.587	.003
	No	1.00		
non-face-to-face contact frequency		1.064	1.011~1.119	.017
Goodness-of-fit test:Hosmer-Lemeshow			$\chi^2=5.15$ df=8, $p=.742$	
Correct Prediction(%)			75.1	
Nagelkerke R <sup>2</sup>			.24	

#### 4. 논의

본 연구는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 성공적인 노화를 Rowe와 Kahn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 요소에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자녀와의 비대면 연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18,25].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되므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년기 삶을 위해 개인이나 국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고령화연구패널 5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19]와 유사하며 배우자의 유무는 우리나라 노인에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부부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원활히 할 때 성공적 노화와 관련이 있었다 [26].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할 때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는 [19]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화에 따른 적응 능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노인들의 교육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 수준의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18], 추후 연구를 통해 교육 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거 형태는 자가를 소유한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27],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집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성취와 지위를 표현해 주는 것뿐 아니라 은퇴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에[2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양한 삶의 활동 기회가 높아져 성공적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9].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 상태, 연금, 저축, 소득 유형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성공적 노화 관계는 선행연구 [18]와 유사한 결과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Lee 등[30]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자 평균 연령이 45.7세의 중년 여성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스스로 전반적 건강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 행위는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을 변화 시켜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31]. 본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농촌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은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32]. 이는 긴 노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증진하는 노인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노인의 일상생활 활동 수준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흡연은 유의하지 않았고 음주는 예상과 다르게 음주를 하는 경우 성공적 노화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음주가 오히려 우울을 줄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33]. 음주와 성공적인 노화와 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비동거 자녀와의 결속력 중 비대면 연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Kim [9]의 연구에서 자녀와 가까이 사는 근접성, 대면 만남의 빈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화나 메일 등의 비대면 연락 빈도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제5차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거주 근접성의 경우 자녀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거주한 부모보다 그렇지 않은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세대 관계에서 비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34]. 반면 비동거 자녀와의 대면접촉이 부모의 생활 만족도 [9], 우울감[20,21],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35]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의 형태보다 가족의 기능 상태가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분석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겠다[36]. 본 연구 결과 노인들은 노후를 자녀와 대면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화나 메일, 영상 통화 등의 비대면 연락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면접촉(만남)은 명절, 제사, 생신 등 관례적인 집안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리적인 거리에 제약을 받지만, 비대면 접촉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대 간 정서적 친밀감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세대 간 접촉 그 자체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와의 접촉 빈도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가족 지지적 체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COVID-19로 인해 감염병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감염병 시대에 노인은 감염 취약계층으로 현저하게 높은 확진율과 사망률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받거나 면회 금지 등이 이루어졌고, 직장에서 은퇴하여 이미 사회적, 경제적 활동 범위가 좁아진 건강한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다[37].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조치지만, 이러한 선택이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OVID-19는 비말, 직접 접촉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전파를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38]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사회서비스 개념을 비대면 교육, 영상 통화, 온라인 모임 등 공간의 제약 없는 비대면 공간으로 확장시켜 모바일 및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정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이 되지 않고 변화하는 정보기기와 정보 활용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상된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참여, 자녀와 자유로운 영상 통화, 전화 통화, 문자 보내기 등으로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매주 요일을 정하여 한 번 혹은 그 이상 전화하기 등의 비대면 부모 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결속력 강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도 자원봉사 조직과 결연을 통해 정서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해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성공적 노화에 주목하였고,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주거 형태, 주관적 건강, 운동, 음주, 자녀와의 비대면 연락 빈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는 것보다 노인의 삶의 위로가 되고 관계의 연속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잦은 비대면 만

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의 비대면 접촉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이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요소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노년기의 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다른 발달단계에도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현시대의 젊은 층들이 노년기에 자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므로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을 분석에 추가할 수 없고 연구 자료가 방대하여 하나의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많지 않아 변인의 구성타당도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성공적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다른 이론 또는 개념 분석을 근거로 다른 차원의 성공적 노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9 social indicators in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_ex.board?bmode=read&aSeq=385322](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_ex.board?bmode=read&aSeq=385322)
- [2] K. S. Park.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mily structure a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2(2), 311-337.
- [3] B. J. Fisher. (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0. DOI : 10.2190/ha9x-h48d-9gyb-85xw
- [4] M. Flood. (2005). A mid-range nursing theory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ory Construction Testing*, 9(2), 35-39.
- [5] B. J. Fisher & D. K. Specht. (1999).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DOI : 10.1016/S0890-4065(99)00021-3
- [6] C. D. Ryff.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 successful ag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2), 35-55.  
DOI : 10.1177/016502548901200102
- [7] J. W. Rowe & R. L.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DOI : 10.1093/geront/37.4.433
- [8] L. Araujo, O. Ribeiro, L. Teixeira & C. Paul. (2015). Successful aging at 100 years: the relevance of subjectivity and psychological resource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 1-10.  
DOI : 10.1017/S1041610215001167
- [9] M. Y. Kim. (2017).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adult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7, 159-182.
- [10] M. R. Crowther, M. W. Parker, W. A. Achenbaum, W. L. Larimore & H. G. Koeni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DOI : 10.1093/geront/42.5.613
- [11] M. Y. Kim & L. S. Park. (2014).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Korean baby boomers. *The Gerontologist*, 54, 145.
- [12] J. W. Rowe & R. L. Kahn. (2015). Successful aging 2.0: conceptual expansions for the 21st centur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0(4), 593-596.  
DOI : 10.1093/geronb/gbv025
- [13] K. S. Park. (2020). Influence of Elderly Cohabitation with Children on Successful Aging - with Focus up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5(4), 175-206.  
DOI : 10.21194/kjgsw.75.4.202012.175
- [14] B. E. Cheong & G. H. Yi. (2010). The Survey Research on Inter-Generation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 An Emphasis on the Social Relationships. *Survey Research*, 11(2), 45-69.
- [15] <http://kostat.go.kr/>
- [16] K. H. Jung. (2000). The type of residence for the elderl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s.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39-242.
- [17] V. L. Bengtson & R. E. Roberts.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856-870.  
DOI : 10.2307/352993
- [18] S. Y. Han & S. N. Yun. (2015).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focused on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6(4), 372-379.  
DOI : 10.12799/jkachn.2015.26.4.372
- [19] B. J. Jeon & H. S. Han. (2019).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of baby-boom generation : application of Rowe & Kahn's theor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siation*, 19(10), 69-83.  
DOI : 10.5392/jkca.2019.19.10.069
- [20] K. H. Jeong, J. S. Kim & J. H. Yun. (2013).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structure Associational solidarity of parent-child for depression of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0, 237-257.  
DOI : 10.2194/kjgsw.60.201306.237
- [21] H. W. Roh, Y. H. Lee, K. S. Lee, K. J. Chang, J. H. Kim & S. J. Lee. (2015). Frequency of contact with non-cohabitating adult children and risk of depression in elderly: A community-based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in Korea.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60(1), 183-189.  
DOI : 10.1016/j.archger.2014.09.007
- [22] Policy Research Report. (2020). *Post-corona era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y services for the elderly Plan research*(Online). <https://ggwf.gg.go.kr>
- [23] S. D. Chung & M. J. Koo. (201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305-324.
- [24] S. J. Lee & M. S. Song. (2015). Successful aging of Korean older adults based on Rowe and Kahn's model: a comparative study according to the use of community senior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2), 231-239.  
DOI : 10.21032/jhis.2019.44.2.198
- [25] S. J. Han, J. S. Han & Y. S. Moon. (2009).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in elder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1(4), 423-434.
- [26] M. Perlmutter & E. Hall. (199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Wiley and Sons Inc*
- [27] B. J. Jeon & E. Y. Choi. (2015).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exclusion, housing tenure type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nd buffering effect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 Social Science*, 26(1), 77-107.
- [28] N. H. Cha & E. J. Seo. (2010). Factors influencing productive activity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ility in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128-138.  
DOI : 10.12799/jkachn.2010.21.1.128
- [29] S. H. Hong & I. S. Kwak. (2011).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s aging on successful aging: the differences between single and couple aged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77-91.  
DOI : 10.6115/khea.2011.49.4.077
- [30] S. H. Lee, H. S. Jang & Y. H. Yang. (2016). The influence of subjective health status, post-traumatic growth, and social support on successful aging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5), 744-752.  
DOI : 10.4040/jkan.2016.46.5.744.
- [31] I. G. Oh. (2012). The effect of hopeless depression on stress in elderly women who live alone: with a focus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4), 237-255.
- [32] S. H. Shin, K. S. Jang & O. Choi. (2019). Study of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2), 198-205, May 2019.  
DOI : 10.21184/jkeia.2015.03.9.1.175
- [33] H. J. Oh & S. Y. Ryu. (2015). Relationship between of body mass index (BMI) and depression in the females elderly with arthritis over 65 years old.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9(1), 175-184.
- [34] H. J. Choi & B. R. Nam. (2019). Frequency and pattern of contact with multiple childre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and later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4), 27-39.
- [35] D. Y. Won & C. K. Han. (2016). The Impact of Assets of the Elderl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Face-to-face Meeting, Contact Frequency and Financial Suppor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6(2), 475-492.
- [36] Y. J. Jeong, N. Y. Yu, B. A. Kim, H. J. Shin & Y. S. Chong. (2014).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with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4), 781-797.
- [37] Korea Labor Force Institute for the Aged. (2020). *life and work in an aging society* (Online).  
<https://www.kordi.or.kr>
- [38] S. H. Lee & J. M. Kim.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and the Challenge of Public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0(2), 87-95.  
DOI : 10.21215/kjfp.2020.10.2.87

## 이 수 진(Su-Jin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성인간호
- E-Mail : sjlee@kcn.ac.kr

## 홍 소 형(So-Hyoung Hong)

[정회원]



- 2015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인간호, 보원대체간호
- E-Mail : hsh-so@hanmail.net